

## 제9강 불교의 사상 I

### ▲ 불교의 기원

- 무아無我에 대한 깨달음이 핵심이다. 붓다는 아난다에게 ‘내가 죽었다고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과 율을 너희 스스로 삼으라’는 말을 남긴다. 붓다의 가르침은 **법(불법, 존재론)과 율(윤리학)**로 남겨진다. 붓다의 사후에 제자들이 결집하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1차 결집(붓다 사망 직후), 2차 결집(1차 결집 100년 후), 3차 결집(2차 결집 100년 후), 4차 결집(3차 결집 100년 후)이 있었다. 2차 결집이 중요한데, 이때에 불교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분파되고 이들이 또 20개 정도로 갈라진다. 이를 두고 부파불교(아비달마불교)라고 한다. 석가가 교리를 펴고 그가 죽은 뒤에 그의 가르침을 모아 이것을 포교한 것을 원시불교原始佛敎라 하고, 원시불교를 토대로 가르침을 체계화, 이론화 한 것이 부파불교部派佛敎(석가 입멸 후 100년경에 원시불교가 분열을 거듭하여 20여 개의 교단敎團으로 갈라진 시대의 불교의 총칭)이다. 부파불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불교(아비달마불교, 아비다르마)이다. ‘다르마 dharma’는 힌두어의 로고스나 이데아에 통하는 개념으로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좁은 의미이다. 용어는 후대사람들이 규정한 것으로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3차 결집 때 ‘경, 율, 론’(이들을 삼장이라 함)이 갖추어진다. ‘경’과 ‘율’은 붓다의 ‘가르침’이고, ‘론’은 붓다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다.

### ▲ 소승불교(小乘佛敎)와 경전

- 소승불교 계통은 오늘 날 ‘상좌부上座部’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두 파가 남아 있다. 경전은 팔리어(Pali)어, 티벳어, 한문(본래는 산스크리트어였으나 한문으로 번역)의 세 가지 언어로 쓰이는데 ‘상좌부’는 팔리어로 된 경전이다. ‘상좌부’는 주로 남방불교로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팔리어 경전은 붓다의 실제모습을 전해주고 있다고 여겨진다. ‘설일체유부’는 한문 경전으로 남아있고, 주로 북방지역으로 전해진다. 한문 경전 중 가장 첫 번째 경전은 ‘아함경阿含經’으로, 불교 경전 가운데 아함부부에 속하는 원시原始 또는 소승小乘 경전이다. ‘아함’은 산스크리트 아가마(Agama)의 음역으로서, 전승傳承이란 의미이다. 팔리어 경전(니카야, Nikaya)은 5부로 나뉘어져있고, 한역 경전의 아함경阿含經은 팔리어 경전의 4부를 포함한다(내용으로 구분되지 않고 설의 길이에 따라 구분된다, 문학적인 구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소부라 한다. 소부小部에는 《법구경(法句經)》 《본생담(本生譚)》 등 잘 알려진 경을 포함한 15가지가 들어 있다. 구성 자체로 보면 팔리어 니카야와 한역 아함 사이에는 유사성은 있으나 완전한 일치는 없다. 아함경은 하나의 일관된 경전이 아니라 경전들의 총서(모음집)이다(이는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이다). ‘대반열반경’ 붓다가 입멸할 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 ▲ 발지론(發智論) 구사론(俱舍論)

- 단출한 기독교 경전과 달리 불교 경전은 너무 많아서 정리가 매우 복잡하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발지론發智論’은 소승불교철학의 핵심적인 책으로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이 유명한 주석서이다. 소승철학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바수반두(세친)는 이 책의 핵심을 뽑아 주석을 달아 아비달마 ‘구사론俱舍論’을 만든다.

### ▲ 붓다의 가르침

- 삼법인인 ‘제행무상’, ‘일체개고’, ‘제법무아’라 할 수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은 ‘현상, 사태, 활동, 행위’ 등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직관이 담겨있다. 제행무상에 대한 근거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서구철학의 becoming으로 볼 수 있다. 온갖 물物, 심心の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체개고一切皆苦’는 사람이 무상無常함과 무아無我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집착하여 온갖 고통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붓다는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험론자이자,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하려는 현상론자이다. 여기서의 ‘일체’는 현실세계 경험의 전체, 주관이 겪는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붓다는 스스로를 실천적 사람이라 칭하였다. ‘제법무아諸法無我’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요소들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불교는 유심론이다. ‘법法’은 이 세계(주관이 느끼는 세계)를 구성하는, 즉 주체체험을 형성하는 모든 존재요소들이다.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체개고 대신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을 들기도 한다.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정적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 ▲ 사성제(四聖諦)

- 붓다의 생각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성제四聖諦를 쓴다. 제諦(satya)는 진리, 진실의 의미이며, 그 진리가 신성한 것이라 하여 사성제라 한다. 사성제설은 석가가 녹야원鹿野苑에서 다섯 비구比丘에게 설한 최초의 설법[初轉法輪] 내용으로 전해진다. **고제苦諦(dubkha), 집제集諦(samudaya), 멸제滅諦(nirodha), 도제道諦(marga)**의 네 가지 진리가 있다. 고제苦諦는 인생이 고혹라는 것에 대한 진리이다. 붓다는 삶을 고(苦)라고 진단한다. 여기서의 고혹은 개체가 느끼는 고만이 아니라, 개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오온五蘊 자체가 곧 고이다. 오온五蘊에서 온蘊이란 곧 집합,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오온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다섯 가지이다. 개체성은 이 다섯 가지 온, 오온의 집합체로 본다. 물보다 산소나 수소가 근본적인 것처럼 개체성, 자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오온이 인간의 구성요소로 설명되었으나 더욱 발전하여 현상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여기서 오온 자체가 고인지, 오온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인지 이는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 불교의 사상 II

#### ▲ 오온(五蘊) :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 우리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를 5 개로 본다. ‘**색色**’(rupa)은 물질적 요소들을 일컫는다. 여기서 물질은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사물의 근저가 아니라, 몸 또는 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상 세계를 말한다. 즉 색은 물질 요소로서의 육체이다. 색色(body, matter)의 반대편에 식識(mind, 심心에 가깝다)이 있다. 색과 심 사이에 수受, 상想, 행行이 있다. ‘**수受**’(sensation, emotion)는 감정·감각과 같은 고통·쾌락의 감수感受작용이다. 즉 인식 주체 대상들과 접촉해서 생기는 감각이나 감정으로 이는 수동적이다. ‘**상想**’(representation, perception)’은 심상心像의 표상, 개념 등의 작용이다. 받아들이는 것들을 지각해서 관념들의 레벨로 표상하는 것이다. ‘**행行**’은 수受, 상想, 식識 이외의 모든 마음의 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 action 의지작용, 잠재적 형성력을 의미한다. ‘**식識**’은 인식 판단의 작용, 또는 인식 주관으로서의 주체적인 마음을 가리킨다. 이는 서양철학의 논법과 비슷하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인도는 동양이 아니다. 인도는 한자문화권이 아닌 인도-유럽어 문화권으로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서양문명이 득세하면서 서양 이외는 모두 동양이라 칭했으나, 동양이나 서양이란 말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 ‘서구, 오리엔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라는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도불교가 선불교(한문으로 하는 불교)로 바뀌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결합체이다. 서구적인 사고패턴은 근본적으로 원자론(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봄)적이다. 붓다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차이는 붓다는 그것들을 쪼개서 붙이는 공간적인 뉘앙스보다는 시간적인 연계성을 중요시한다는 데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것(원자, 이데아)도 생성론적으로 이해한다. 오온이 모두 고(괴로움)이다, 이는 곧 무상하다, 또는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고라는 뜻이다. 오온은 무이다. 즉 오온을 소유하는 실체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다른 것과 부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주어)은 실체였고, 부대하는 것은 그 실체에 부대하는 것(술어)이었다. 그런데, 붓다에게는 substance 가 없다.

#### ▲ 육경(六境)

- **불교에서 육근六根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 경계**를 이르는 말이다. ‘눈·귀·코·혀·몸’의 다섯 감각기관과 이를 통솔하는 의근意根을 육근이라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인식대상이 육경六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색경色境, 귀로 듣는 것이 성경聲境,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 향경香境, 입으로 맛을 아는 것이 미경味境, 몸으로 느끼는 것이 촉경觸境, 마음으로 아는 것이 법경法境이라고 한다. 육근과 육경을 합쳐 ‘십이처’라고 부른다. 후대의 불교철학에서 붓다의 유심론으로부터 실재론적인 면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물들 일반으로 넓혀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모든 사물들은 ‘다르마’라고 하는 궁극적인 존재요소로 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원자론적이지만 또 원자론과는 다른데, 원자론에서 말하는 원자는 오로지 물질이지만 한 것이고 위치, 크기, 모양의 세 가지 속성만 띠는 것이다. 이 다르마는 굳이 말한다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보다는 아낙사고라스 Anaxagoras 의 스페르마타 spermata 에 가깝다. ‘스페르마타’는 종자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대립물을 포함한 것이다. 존재요소들은 그 자체조차도 항구적인 실체가 아니라 생멸을 경험한다. 그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며 이것은 곧 일체개고一切皆苦, 제법무아諸法無我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 ▲ 집제集諦

- 고제苦諦가 삶에 대한 직관적인 진단이라면, **집제集諦는 고제를 심층 진단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철학적이기도 하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인과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인과의 법칙을 받지 않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을 받지 않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삶이란 것은 인과가 없는 무질서하고 카오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제행무상의 ‘무상하다’는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행동도 인과의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곧 연기설이고, 붓다 가르침의 핵심이다(중국 고전소설에서는 승려들이 “이 화상이 또 무근 연기설을 이야기하려나?”하는 말이 안 좋은 맥락에서 자주 나옴).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애욕 때문이다. 이 애욕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요소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개념을 말한다. 애욕이라는 것은 집착, 떨치지 못함, 끝없이 되돌아옴, 벗어날 수 없음 등을 뜻하다. 인생이 고통인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붓다는 여기서 12 지 연기설을 이야기한다. 연기설은 어차피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명에서 시작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보통 무명에서 시작하는 것은 모든 고의 출발점을 어리석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명은 깨닫지 못함, 즉 어리석음이다. 궁극적 실체 같은 것도 없고 이 모든 과정을 겪는 주체도 없다. 주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체를 뚫고 지나간다. 나라는 것을 완벽히 부정하면 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는 내가 나쁜 행위를 책임질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한 인간의 인격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식’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조차도 결코 실체는 아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이다.

#### \* 참고자료 1

· 12 인연(十二因緣)

- ① 무명(無明) : 진리에 미혹(迷惑)해서 사물의 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최초의 한 생각. 구사론(俱舍論)에서는 무명홀기(無明忽起)라 하여 홀연히 무명은 일어난다고 함.
- ② 행(行) : 행위, 행업(行業). 무명으로 말미암아 식(識)을 일으키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
- ③ 식(識) : 六根을 통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인식작용. 모태(母胎)로 들어가는 탁태(托胎)의 초념(初念)
- ④ 명색(名色) : 명(名)은 정신적인 것이고, 색(色)은 물질적인 것.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결합한 상태로 인식작용에 의해 존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육입(六入) : 六根.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여섯 감각기관이 완비된 出胎전의 상태.

- ⑥ 촉(觸) : 六根과 六境과 六識이 접촉함으로써 감각이나 지각의 인식작용이 생기는 것
- ⑦ 수(受) : 인식작용이 생긴 뒤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는 苦·樂·好·惡 등의 감각을 말함.
- ⑧ 애(愛) : 오욕락(五慾樂)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愛着)
- ⑨ 취(取) : 잘못된 애착(愛着)의 욕구를 강하게 집착해서 身·口·意 三業을 짓는 것
- ⑩ 유(有) : 身·口·意 三業을 지음으로써 生死하는 존재 그 자체가 형성된 것을 의미. 경전에 의하면, 유에는 三有가 있으니 三有는三界라 한다.三界는 生死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곳
- ⑪ 생(生) : 生死하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生하는 것
- ⑫ 노사(老死) : 生으로 말미암은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苦).

#### ▲ 열제減諦

- 열제減諦는 **처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통이 멸한 상태, 즉 열반된 상태**를 일컫는다. 니르바나 nirvana 가 존재함을 말한다. 후에 이론이 전개되면서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이 구분된다. 유여열반은 오온 자체는 유지가 되면서 열반에 드는 경우, 무여열반은 오온 자체까지 완전히 탈각한 것이다. 유여열반에서 오온을 가진 해탈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붓다는 이것을 형이상학적 문제라고 잘라버린다(붓다의 14 무기無記). 이는 칸트의 이율배반 antinomie 개념과 비슷하다. 그러한 문제는 신 혹은 우주의 증명 같은 문제 같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열반의 세계는 ‘존재와 무’라는 이분법으로 개념화하기 힘든 세계이다.

#### ▲ 도제道諦

- 도제道諦는 **일종의 실천항목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의미**한다. 즉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정어, 정업, 정명)’는 주로 ‘~하지 말라’는 뉘앙스이고, ‘정(정념, 정정, 정정진)’은 ‘선정, 수양을 닦는 것’, ‘혜(정견, 정사)’는 ‘공부하는 것’이다. 이를 삼학三學이라 한다. 나중에 ‘론(아비다르마)’이 등장하면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인간의 오온이 화합한 현상적 존재로 보는 붓다상을 받아들인다(인은 공하다). 세계 일반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 요소들(다르마)은 있다. 바수반두는 이를 75 법으로 파악한다. 이것들은 궁극적인 존재요소이다.

#### \* 참고자료 2

· 팔정도八正道

- ① 정견(正見) : 바른 견해
- ② 정사(正思:正思惟) : 바른 생각
- ③ 정어(正語) : 바른 말
- ④ 정업(正業) : 바른 행동
- ⑤ 정명(正命) : 바른 생활
- ⑥ 정정진(正勤:正精進) : 바른 노력
- ⑦ 정념(正念) : 바른 마음의 수행
- ⑧ 정정(正定) : 바른 집중

#### ▲ 법

- 화학에 비유하자면 우리 몸은 실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영원불변의 자아가 없고 단지 물질적, 그리고 심적 요소들의 혼합체에 불과한 현상적 존재이다. 하지만 바수반두의 75 법은 물질 레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실체성은 공이지만 다르마들은 있다(인공법유인空法有). **법은 작용이다. 작용자체는 근본요소인 것이다. 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생성이지만 그 실재성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도 exist,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action, becoming 이다. 그러나 그 action, 그 becoming 은 subsist 하다. 철수나 뽀빠는 exist 하는 것이고,

인간이라든가 개라는 보편자는 subsist 하는 것이다. 들뢰즈의 예를 들면, 타자가 공을 치고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 흥런이 exist 하는 것이다. 약간 시간이 지나면 그 exist 는 없어진다. 다음날 다시 흥런을 치면 흥런은 또 exist 한다. 그렇다면 그 동안 그 흥런은 어디 갔었는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subsist 한 것이다. 75 법이라는 것은 exist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지만 늘 subsist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붓다의 유심론에서 실재론의 입장으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카르마 karma(업)의 지속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바수반두는 이 연속성을 물질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업이 독특한 형태의 물질 속에 남는다는 것인데, 현대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소박한 설명일 수 있다. 바수반두는 기본적으로는 대승불교의 입장이나 학문적으로는 소승불교적인 업적을 남긴 것이다. 당시는 이미 대승불교나 힌두교 승론철학(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비슷)이 성했다.

#### ▲ 72 개의 유위법

- 75 법은 72 개의 유위법과 3 개의 무위법으로 나눈다. **유위는 연기되는(연기를 겪는) 것**, 연기의 인과론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붓다의 연기설 등을 자세하게 분할해놓은 것을 말한다. 유위법은 때로 11 개의 색법色法, 11 개의 심법心法, 46 개의 심소법心所法, 14 개의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法으로 나누기도 한다. 심소법은 붓다의 ‘수’, ‘상’, ‘행’에 가깝다. 심불상응행법은 심에 상응하지 않는 행법, 예를 들어 생명력 같은 것을 말한다.

#### ▲ 3 개의 무위법 : ‘무’로써의 영원

- **3 개의 무위법은 연기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허공, 택멸 무위**(지혜를 통해 얻는 열반), **비택멸 무위**(무위를 통해 어떤 법도 생겨나지 않는 것)로 나눈다. 완벽하게 연기설만 이야기하면 ‘열반’ 개념은 불가능하다. 12 연기의 흐름에서 벗어난 경지가 열반이다. 존재로써의 영원이 아니라, **‘무’로써의 영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비추어보면 제행무상諸行無常과 제법무아諸法無我的 차이가 잘 드러난다. 72 의 유위법은 행들(오온, 십이지연기), 결국 제행무상이다. 3 의 무위법은 행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행을 초월한 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아我’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것이 제법무아이다.